

동학농민혁명 스토리(웹소설) 공모전

응모분야	웹소설	접수번호	이 부분은 기재하지 마십시오.
작품제목	녹두장군의 전담 호위가 되었습니다		
13화 : 모든 준비는 끝났다			
<p>보름 남짓 남은 시간동안 현세는 하루에 서너 시간을 자면서 조총 개조에 몰두했다. 연속으로 격발을 할 수 없다는 치명적인 단점을 끌어안고자 골몰해낸 방법이 바로 ‘저격’이었다.</p> <p>던지는 용도나 마찬가지로 38권총이라도 있었더라면... 특공대에서는 취급조차 하지 않던 무기마저 아쉬운 현세였다.</p> <p>‘Cocking(총의 공이치기를 당기는 것)만 할 수 있어도 좋으련만.’</p> <p>주어진 재료가 하잘 것 없으니 있는 대로 끌어 모아 요리를 하는 수밖에 없었다. 그나마 희망적인 것은 개머리판을 어느 정도 다 부착했다는 사실이었다.</p> <p>현세는 조총을 시험하면서 몇몇의 뛰어난 사수들을 추려낼 수 있었다. 과연, 주몽의 후손이자 이순신을 조상으로 둔 민족이 맞기는 한 모양이었다.</p> <p>테스트를 거듭해 뽑혀 나온 농민군들은 현세의 가르침대로 가늠자와 가늠쇠를 가운데 맞추는 법을 빠른 속도로 습득 해나갔다. 원거리를 뚫기에는 화력이 달리니, 정확도를 높이는 훈련이 계속되었다.</p> <p>현세는 탄착군의 위치를 가늠하며 오조준(誤照準)을 바로잡아 주었다.</p> <p>“가만히 있는 표적은 어린아이도 맞출 수 있습니다. 상대는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한 발로 정확히 타격을 먹이는 게 중요해요. 여기 가늠자 안에 가늠쇠를 수평으로 맞춘다는 느낌으로 목표물을 조준하는 겁니다. OK?”</p> <p>농민군은 대놓고 감탄을 늘어놓았다. 정말 현세의 말대로 오조준을 바로잡으니 탄착군이 목표지점에 안정적으로 안착한 모습이었다.</p> <p>“워메, 찍이는 구먼! 오께오께! 그나저나 현세 너, 조총 쏘는 기술은 어디서 배운겨? 관군들도 요정도는 아니지 싶은디.”</p> <p>“그러게 말이여! 참말로 오께여, 오께!”</p> <p>그들은 벌써 현세의 말투에 어느 정도 적응하고 있었다. 약간 정신이 나간 것 같기</p>			

는 해도 사격실력하나는 우수한 현세가 대견할 따름이었다.

현세는 픽 웃음을 흘리며 총신의 각도를 바로잡아 주었다.

“성범 아재, 아재는 탄착군이 아래로 자꾸 쳐지잖아? 그럼 가늠쇠를 약간만, 아주 약간만 올린다는 느낌으로, OK?”

“와따메... 오께오께!”

현세의 눈매가 부드럽게 휘어졌다. 날고 긴다는 사수가 넘쳐나도 시건방지기 그지없던 특공대의 분위기와는 영 판판이었다. 농기구를 잡던 투박한 손이 조총을 이리 쥐고 저리 쥐는 모습이라니. 신기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씁쓸했다.

현세의 가르침을 받는 농민군은 나이가 지긋한 사람부터 그와 또래로 보이는 사람까지, 다양하게 모여 있었다. 그들은 출신성분을 크게 따져 묻지 않고 서로의 실력을 견주어보기 바빴다.

나이가 무슨 소용인가. 하물며 하늘아래 귀한 씨가 어디 따로 있으랴!

현세는 어쩐지 자유로움을 느꼈다. 휴대폰도, 그 흔한 손목시계조차 없는 이곳에서는 계급이니, 재산의 유무니 같은 것을 따지지 않았다. 심지어 ‘가까워 툭’을 하지 않아도 상관없었다.

무장 투쟁을 앞둔 분위기가 우스울 만큼 이곳은 정이라는 것이 넘쳤고, 서로의 안위를 위하는 마음이 가장먼저 앞서 있었다. 마치 자석 같았다. 무엇이 이들을 하나로 뭉치게 만드는지는 정확히 형언할 수 없었지만 피부로 느껴지는 결속이 현세마저 끌어당기고 있었다.

벌써 시간이 이리 되었나? 현세는 저녁놀을 잠시 흘깃거리고는 유유히 말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표적 맞추기는 잘 되고 있는 것 같으니까 내일부터는 ‘엎드려 쏘’를 연습하도록 하죠. 들어가면 그냥 쉬지 말고 어깨도 좀 풀어주시고.”

“아니, 엎어져서 총을 쏜단 말이여? 당장 달려가도 모자랄 판에?”

현세는 거뿔들인 표적지를 한 장, 한 장 세심하게 훑어 넘기며 입매를 끌어올렸다.

“우리는 엄폐와 은폐를 적절이 섞어가며 저격에만 집중할 겁니다. 아재들 목숨은 소중하니까요.”

그것만이 느리고 썩어빠진 조총을 그나마 유용할 수 있는 방법이었다. 죽창을 든 농민군의 목숨을 하나라도 더 구하려면 상대방의 허를 찌르는 방법이 가장 좋았다. 그때였다. 저 멀리서 화중을 수행하는 농민군 하나가 달려왔다.

“헉헉... 현세야, 빠꾸기헌티 기별이 왔구먼!”

현세의 눈동자에 반짝하고 빛이 스쳤다. 어찌 보면 살기 같기도 하고, 또 어찌 보면 총기 같기도 했다. 그는 좀처럼 감정이 묻어나지 않는 어조로 읊조리듯 말했다.

“그거... 잘됐네요.”

첩자 신분을 들킨 줄 모르는 몇몇의 미꾸라지들이 관군에 거짓 정보를 흘려주고 귀한 소식을 물고 온 모양이었다. 이제, 칼을 뽑아들 시간이었다.

현세는 그 길로 봉준을 찾아가 보고를 시작했다. 비록 프롬포터도, 도화지 같은 스크린도 없었지만 봉준의 마음을 움직이기엔 충분한 시간이었다.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았다.

1. 전라감사 김문헌이라는 공무원이 감영군을 모아놓고 대기 중임
2. 화력 좋은 중앙군이 남하 중인데 숫자는 팔백 명 정도 예상됨
3. 위의 1, 2번이 조만간 합세할 것으로 추정

봉준은 어느 정도 예상했다는 눈치였다. 다만, 중앙군이 합세하게 됐을 경우 이쪽에서 입을 피해가 염려되는 모양이었다. 그는 스스로 지옥 불에 뛰어들었음 들었지, 동료들의 목숨까지 불태우고 싶지는 않았다.

“중앙군 화력이 보통이 아닐 것이며, 네 생각도 그렇지?”

봉준은 늘 그랬듯이 현세의 의견을 물었다. 현세를 향한 그의 눈빛에 담긴 감정은 빛진 목숨 값에 대한 대가와는 결이 달랐다. 애뜻함이 스쳐지나간 갈색 눈동자의 떨림은 깊고도 아련했다.

그런 감정을 알 턱이 없는 현세는 골똘히 생각에 잠겨있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지. 군사훈련을 받아본 적도 없는 농민들이잖아. 격발식 총 한 자루면 대여섯 명은 금방이다.’

심지어 저들은 농민군의 전력이 거의 바닥에 가깝다고 인식하는 중이었다. 농사만 짓다가 모였으니 제아무리 머릿수가 깡패여도 정식으로 훈련받은 관군에다 신식 무기 앞에서는 바람 앞에 촛불처럼 느껴질 터였다.

현세의 얼굴도 덩달아 어두워졌다. 이는 죽음을 앞둔 두려움이라기보다 억울함이 더 컸기 때문이리라.

“아마도요. 이런 단발식 조총과는 비교가 안 될 겁니다. 그래도 봉 형, 방법이 있을 겁니다. 이곳에 오기까지도 쉽지 않았잖아요.”

쉬운 일은 단연코 하나도 없었다. 이 많은 인원이 모이기까지는 농민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제 그들에게 봉준은 희망이자, 표류하는 뱃머리를 바로잡아줄 등대와도 같았다.

봉준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잠시간의 침묵인데도 그의 어깨가 짓눌린 듯 무거워 보였다. 현세는 그런 봉준을 말없이 응시하며 답을 기다려주었다.

이윽고, 봉준의 입에서 놀라운 소리가 흘러나왔다.

“우리 전력이 얼마나 바닥인지 보여주자고. 어때? 네 생각은?”

“...일부러요?”

의아함으로 빛나던 현세의 눈동자가 의미심장한 기운으로 물들기 시작했다.

정읍 황토재로 향하기 하루 전.

칠곡 같은 밤하늘이 백산의 공기를 무겁게 에워쌌다. 아직까지는 일교차가 느껴지는 4월 초입의 밤공기 탓인지,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지척까지 왔기 때문인지, 혹은 둘 다인지는 알 수 없었다.

약 보름의 기간밖에 주어지지 않았지만, 현세는 자신이 직접 뽑은 저격 부대를 나름대로 훌륭하게 키워냈다. 고된 훈련도 이제 막바지를 달리고 있었다.

현세는 표적지 정 중앙에 형성된 탄착군에 시선을 고정한 채 말했다.

“중군요. 그래도 실전에서는 절대 흥분하면 안 됩니다. 적을 쓰러뜨리는 게 아군을 보호하는 겁니다. 제 말뜻 아시겠죠?”

“오께오께! 걱정도 팔자여, 젊은 놈이!”

“우리도 오께여, 이놈아!”

조출하게 꾸며진 훈련장은 건넌마을에 마실 이라도 가는 마냥 화기애애한 웃음꽃이 피어났다. 그 속에서 현세는 굳이 오케이라고 바로잡지 않았다.

작금의 시대는 일본, 중국, 러시아 등 너나 할 거 없이 조선을 도적질 하려 혈안이 었다. 그까짓 외국어, 조금 틀린다고 잡아갈 사람은 아무도 없을 터였다.

현세는 차마 입 밖으로 내뱉지 못 할 말을 마음으로 되뇌었다.

‘아무도 다치면 안 돼요.’

스물여덟의 영혼을 품어서일까. 괜히 코끝이 시린 현세였다. 불과 두 달 남짓 부대 켜를 뿐인데도 이토록 샘솟는 전우애라니, 놀라웠다.

현세는 표적지에서 시선을 떼지 않고 그들을 배웅했다. 눈을 마주쳤다가는 질풍노도의 호르몬이 금방이라도 폭발해 버릴 것만 같았다.

주책이지..., 정말 주책이었다. 포로 송환 작전 중 동료를 잃었을 때도 눈물을 보이지 않았는데 말이다.

‘일단 위험요소부터 제거하자.’

현세는 봉준에게 들르기 전에 현중이 머물고 있는 막사를 방문했다. 그곳에는 부모를 잃은 어린아이들이 주로 모여 있었다.

“어?! 성!”

현중은 현세를 보자마자 쟁 걸음으로 달려와 품에 안겼다. 현세는 그런 현중을 물끄러미 내려다보며 부드럽게 말했다.

“뭐야, 아직 안 잤어? 늦었잖아.”

“널 이른 전주성꺼정 올라가잖여. 걱정이 돼서 잠이 안와.”

녀석은 정읍에서 치러질 전투에 대해 까마득히 모르고 있었다. 다행이었다. 봉 형의 치고 빠지자는 전술은 현세를 비롯해 농민군의 핵심 인사들만 아는 내용이었다.

현세는 피식 웃으며 녀석의 동글동글한 뒤통수를 쓰다듬었다. 어째 처음 만났을 때보다 키가 더 자란 것 같았다. 애들은 금방금방 크다더니, 정말 그랬다.

“걱정하지 마. 형이 토르 망치보다 더 좋은 걸로 구해다 줄게. 그때까지 사고치지 말고 연희 누나 말 잘 듣고 있어야 돼. 알겠냐?”

“나는 뭇땀시 따라가든 안 되는 거? 성 혼자 외롭잖여. 방해 안 할테니께 쫘이도 데려가! 성... 어흑...”

현중의 말간 얼굴이 금세 축축해졌다. 현세는 옷소매를 끌어내려 녀석의 두 볼을 닦아냈다. 속 한구석이 울컥거려서 한참이나 이를 깨물어야 했다.

‘이러려고 온 게 아니잖아.’

호흡을 가다듬은 현세는 무릎을 꿇고 현종과 시야를 맞추며 부드럽게 말했다.

“쫓이 네가 안전해야 형이 맘 놓고 싸우지.”

“싫구먼! 나도 성 따라 갈 거여!”

현종은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떼를 썼다. 7살밖에 안 먹은 주제에 고집이 어마어마했다.

하는 수 없이 현세는 남자의 호승심을 이용하기로 했다. 녀석도 남자이니 먹혀들 가능성이 컸다.

“그럼 형이 너한테도 미션을 줄게. 나는 나대로. 너는 너대로 최선을 다하는 거야. 어때?”

“그게 뭐당가?”

촉촉이 젖은 아이의 눈망울에 호기심이 스쳤다. 현세는 걸렸구나, 싶어 제법 심각한 표정을 지어보이며 진지하게 말했다.

“연희 누나를 지켜줘. 남자 대 남자로서 부탁하는 거야. 그래줄 수 있지?”

“시방 나 헌티 남자라고...?”

“그래. 남자.”

현종의 가로지르던 고개가 세로로 오르내리기 시작했다. 현세는 만족스런 기색을 띠며 동생의 머리를 형클어뜨렸다. 향긋한 샴푸냄새와는 거리가 멀었지만 어린아이 특유의 고소하면서도 따뜻한 냄새가 펍 기분 좋았다.

“약속했어.”

“응! 약속! 누나는 나가 지킬테니께 성은 아무 걱정일랑 말어.”

동생과 별리의 정을 나눈 현세는 막사를 나와 봉준의 처소를 향해 걸었다. 서늘한 미풍이 머리칼을 스치자, 자연스레 고개가 위로 올라갔다.

밤하늘을 수놓은 큼직한 별무리가 참으로 비현실적이게 느껴졌다. 이토록 아름다운 광경이라니, 죽을 때까지 보아도 질릴 것 같지 않았다.

감상에 젖은 채로 봉준의 막사에 다다랐을 무렵, 자박자박 걷는 발소리가 귓전에 닿

았다. 현세는 반사적으로 뒤를 돌아보았다.

그의 심장이 처음 세상을 만난 것처럼 요동치기 시작했다. 그가 꿈꾸던 세상이 바로 눈앞에 서있었다.

“연희씨...”